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촘촘한 인적안전망’ 여수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단 발대

우리동네 복지리더, 위기가구 발굴 활동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에 앞장설 여수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단 ‘우리동네 복지리더’가 발대했다.

시는 지난 13일 여수문화회에서 ‘우리동네 복지리더 발대식’을 열고 1757명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복지위기가구 발굴·유연동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동네 복지리더’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과 지역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활동할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 자치위원 이·통장, 집배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밀착형 보호 체계를 가동해 복지 위기가구의 초기 위기를 감시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발대식에 참석한 박도씨는 “우리 동네 복지리더로 활동하게 돼 정말 기쁘다. 자긍심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서 좋은 빛, 따뜻한 이웃이 돼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군, 동절기 월동모기 유충구제 방역소독 실시

무안군은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0일부터 동절기 월동모기 집중 방역활동에 나섰다.

월동모기는 기온 저하로 인해 지하실, 정화조 등에서 겨울을 나는 모기로 불이 있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집단으로 서식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집중방역을 실시하면 이듬해 모기 개체 수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군은 방역 소독반을 편성하여 마을회관 및 공중화장실 439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정화조, 하수구 등 유충서식지에 모기 유충조사 및 유충구제소독약 투입으로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선정

영암군이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2014년도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규제개선 사례, 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등을 발굴해 각 지자체가 자율 정비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법제처가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한 뒤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4년 법제처의 동 사업에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법제처와의 전방위적 협업을 통해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법령부적합 규정 등의 개선과제 312건을 발굴했다.

이후 개선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발굴된 정비과제에 대한 소관부서별 검토와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과제 312건을 100% 조기

정비완료했다.

영암군의 수상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적기 반영하여 중앙의 정책변화가 군에도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정기적인 일괄개정을 통해 40여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앞장서는 등 의회 및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상식은 13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법제지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영암군을 비롯한 11개 우수 지자체에 대해 법제처장이 기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 우수기관 선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실질적인 편익을 담은 법제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예비 준비 끝

‘생명, 순례, 치유의 섬, 완도’ 개념으로 2019년 본신청서 준비



완도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MAB)을 위해 ‘생명, 순례, 치유의 섬, 완도’라는 핵심 개념을 설정하고 2020년 본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MAB) 등재를 위한 기초 단계인 예비신청서 작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이번 예비신청서 작성 용역 최종 보고회는 한국MAB 심숙경 부위원장

과 전 MAB위원장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제경 대표, 목포대 조경만 교수, 이현중 교수를 비롯한 용역 연구진과 신우철 완도군수를 포함한 국·단장, 부시장, 유네스코 TF팀 등이 참석했다. 군과 용역 팀은 예비신청서 작성을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1년 여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개념 설정을 위한 40여 차례의 전라회의 등 집필 작업이 있었으며 30여 명의 한국 MAB위원들, 생태학, 문화학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 다섯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했다.

또한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이틀간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완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완도군 전역이 대상이다.

핵심구역의 특징으로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의 서식 여류인 해마, 다양한 산호류 등 해양보호종이 산재해 있다.

특히 완도수목원의 경우에는 3,838종의 수목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청산도 구름장노과 보길도 운산도 원림은 경관과 인간의 생태학적 문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 장소이다.

용역 팀은 지난 11월 국제학술포럼에 참석했던 생태재단 공동의장인 마이클 니콜(캐나다)의 말을 소개하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담양군, ‘2019년 겨울방학 중 대학생 인턴사업’ 추진

인턴 참여자 및 인턴 사업 참여 공공기관 모집

담양군이 관내 거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겨울방학 관내 대학생 인턴사업’을 추진한다.

담양군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관내 대학생 인턴사업은 대학생들이 직장 생활 체험을 통해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취업경쟁력을 높이며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경제적 자립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6주 동안 근무하며 공고일인 11일 기준 현재 담양군에 주민 등록 있

는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로드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군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 인턴은 총 35명을 선발하며 참여기관이 추가로 모집될 시 인턴을 추가 선발 할 예정이다. 군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학력, 자격증, 어학점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

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발된 인턴은 사회 진출 이전 실무지식 습득 및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취업을 대비해 부족한 부분, 적성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취업의 밑거름이 될 인턴사업에 지역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참여 공공기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담양군청 콜센터(061-380-304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가족정책서비스 우수사업 공모’ 우수상



화순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8년 가족정책서비스 우수사업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지방보육청에서 열린 시상식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서 주관하여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2018년 한 해 가족정책 서비스 우수사업 공모전을 펼쳐 최우수상 4개소, 우수상 8개소의 센터를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남 복지재단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할머니의 무르파 Story, 아빠의 팔그네 Play!’ 프로그램으로 공모전에 참가하여 당당히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 공모사업 외에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화순군에 감사드리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가족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기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를 위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